

개신교 극우화와 정치 관계 조명

문예지 ‘문학들’, 민주주의 잠식하는 신앙의 정치 등 다뤄
기후 위기 시대 재난 현장·이 시대 다시 읽어야 할 작품 코너 등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익을 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정치가 종교와 분리돼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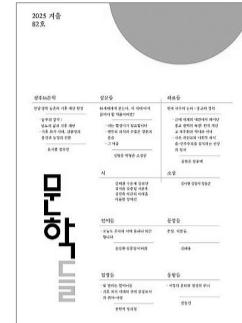
지역에서 밭간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은 겨울호에서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한 글을 게재했다. ‘좌표들’에서 ‘한국 극우의 논리: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진단한 것.

김현준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교수는 ‘근대 세계의 내면에서 깨어난 종교 권력의 유행: 한국 개신교 극우화의 역사와 서사’라는 글에서 “개신교는 정치에 이용당하면서 정치를 이용해 왔다”고 본다.

그는 “극우화란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가치 자율성을 잃고 양자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어 민주적 정치 사회를 위협하는 병리적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보수 개신교들은 정치 영역에 극우 이념을 기공하여 제공하는 생산자이자 극우 행동주의 험련소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와 종교 간의 견진한 분별적 관계를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 사회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며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방지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성 안에서 재통합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언급했다.

정용택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극우 개신교가 극우 파시즘으로 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극우 개신교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한국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본다.

정 교수는 ‘극우 개신교와 사회적 파시즘·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신앙의 정치’라는 주제의 글에서 “극우 개신교가 특히 위험한 까닭은 이들이 사회적 파시즘의 조건 속에서 성장하여 제도권 보수와 결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잠식할 수 있는 파시즘적 운동이라는 사실에 있다”며 “이들은 민주주의 언어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치를 무력화하기에 더욱 교묘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극우 파시스트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극우 개신교의 반민주적 본성을 직시하고 지금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포스트-

-신자유주의적인 새로운 사회 계약을 복원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극우 개신교의 반민주적 담론과 행위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배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사회 경제적 대안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호에는 기후 재난 현장을 다룬 ‘광주IN 문학’도 의미있는 글이 실렸다. 사실 기후 재난과 관

련에서는 행정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 전 지구적이며 한편으로 재난의 강도와 영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은 ‘농부의 감각: 남도의 삶과 기후 재난’에서 농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긍정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톤으로 말한다. 유 연구원은 “기후 위기 시대의 농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뜻 존재의 숨을 감각하며 하늘과 땅의 장단에 맞추어 농사 짓던 이들의 경험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숙정 경북대 사회학과 강사는 ‘기후 위기 시대, 감각면의 풍경과 농업의 전환’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감각과 수치를 매개로 오늘날 농촌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색적인 코너도 있다. ‘질문들 86세대에게 묻는다. 이 시대 다시 읽어야 할 작품이라면?’에서는 김형중 평론가가 이창동의 ‘끈’을, 박형준 시인은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 조경란 소설가는 임철우의 ‘사령역’을 듣는다.

이밖에 문인들의 다양한 시, 소설도 만날 수 있다. 시에는 강혜원, 구운재, 김뉘연, 김석윤, 김종일, 서순후, 이대호 등의 시인의 작품이 게재됐다. 소설에는 김나현, 김엄지, 정용준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한편 지난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던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겨울호(82호)를 끝냈다. 창간 20주년은 2000년 이후 광주 문학의 역사 이자 중요한 ‘문화자산’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 문학과 역사는 물론 문학의 텃밭을 일구고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도 담당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 어느 지점에서든 다시 꿈을 꿉니다

박춘업 전 곡성 중앙초 교장 자서전 ‘선배님, 나도 나팔…’ 폐내



울림을 준다. 저자는 2008년부터 일기 형식의 기록인 ‘소나무집 소소(小笑)한 이야기’를 주준히 써 왔으며, 이 기록이 자서전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자서전은 저자 개인만의 기록을 넘어서, 평생을 함께 걸어온

아내 안순례 전 교장선생님과의 부부로 서사이기도 하다. 병환 속에서도 서로를 복과 나팔처럼 밭에 부부의 삶은, 자서전이 단지 개인의 회고를 넘어 ‘부부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넘어지고 훌들리면 서도 끝내 자기 삶의 소리를 찾아간 한 교육자의 기록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다시 꿈을 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문화비평 흐름 한눈에

‘한국문학 비평 아카이브’ 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온라인 플랫폼 ‘문화광장’에 한국문화 비평 원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한국문화 비평 아카이브’를 개설했다.

18일 예술위에 따르면 ‘문화광장’(munjang.or.kr/criticism)에 마련된 ‘한국문화 비평 아카이브’는 문예지별로 개별 축적된 문학 비평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 디지털 아카이브다.

아카이브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창작과비평’, ‘자음과모음’, ‘문학들’ 등 주요 문예지에 실린 비평 원고 300건과 함께 이를 집필한 평론가 120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했다.

예술위는 이번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으로, 연도별 비평 원고를 순차적으로 축적해 한국문화 비평 흐름을 지속해 기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위 관계자는 “동시대 문학 담론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서부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산에 둘러싸인 철새를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의 선물인 아름다운 조수로



펄개벌 위의 수체화



갯벌 위에 솟는 무희, 사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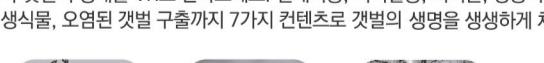
일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묘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흙한끼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면밀활동, 서식굴, 풍동에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무가,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